

무주서 만나는 '종이로 연결된 세상'

최북미술관 ·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협력 전시회 내달 31일까지 개최

무주최북미술관과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협력 전시회 '종이로 연결된 세상'이 오는 5월 31일까지 최북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페이퍼 잼(PAPER+JAM)'의 전북권 공립미술관 순회전시의 일환으로 무주를 찾은 이지희 작가의 작품들로, '세계 주요 건축물과 문화적 상징물'을 소재로 작가의 상상력과 여행을 표현한 종이 예술작품(13점)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모두 '책상 위의 도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Big Paper's Travel on the Desk)'을 콘셉트로 한 친환경 작품들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의 '빅벤'과 프랑스의 '에펠탑', 독일의 '노이슈탄슈타인성', 러시아의 '성바실리대성당', 이집트의 '스핑크스' 등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아마존 밀림과 아프리카 초원과 같은 자



무주최북미술관과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협력 전시회 '종이로 연결된 세상'

연유산을 종이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이번만 아니라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비롯해 꾸마보를 닮은 '판다', '강아지' 등 모두에게 친숙한 대상들을 형상화한 작품도 전시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최북미술관의 공간적 특성

을 충분히 활용해 1층은 '프랑스'와 '영국'을, 출입구 위 천장에는 '비행기'를 설치했다. 2층 기획전시실과 로비에는 '남미·아프리카·이집트·아시아'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이지희 작가의 종이 작품들은 특히 높이 5미터가 넘는 대형 작품들(에펠탑 6m)이 다수여서 직접 봐야 장엄한 감동을 실감할 수 있다.

무주최북미술관 하유진 학예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하게 구성한 전시로 온 가족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며 "최북미술관과 함께하는 무주 여행, 작품을 감상하며 즐기는 세계여행의 기쁨을 만끽해 보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무료 관람(문의 063-320-5604)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단, 5. 5. 어린이날 개관)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 예술계 이끌 신진예술가 선정

전주문화재단, 전주신진예술가지원 사업 최종 선정자 8인 발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이 전주 예술계를 이끌어 갈 전주신진예술가지원 사업의 최종 선정자 8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예술계 첫 데뷔를 지원하는 '처음발표' 부문에는 김민지 씨와 정유진 씨가 선정됐다. 김민지 씨는 '편지가 늦었소'라는 작품을 통해 배움의 가치와 세대 간 공감의 주제로 한 연극 연출에 처음 도전한다. 정유진 씨는 과도한 정보 속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탐구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 개인전 '허구의 축으로 이어진 세계'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이어 '다답발표' 부문 공연 분야에는 김윤하



연주자, 이희준 배우, 최산하 클라리네티스트가 이름을 올렸다. 김윤하 연주자는 가야금과 책을 매개체로 삼아 음악과 기록을 엮은 공연 '그곳에 닿기들'을 펼쳐 보일 예정이다. 이희

준 배우는 치유극 형태의 연극 '한 겨울의 오로라'를 통해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한다. 최산하 클라리네티스트는 'Baro Cla'를 기획해 클라리넷을 매개로 바로크 음악을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다답발표' 부문 시각 분야에는 김규리, 문채원, 박로운 작가가 선정됐다. 김규리 작가는 '만날 수 없는 곳에서 마주치지도 못 할 시간을 기다리다' 전시를 준비중이며, 장소의 특성과 이야기에 소리를 더해 재구성하는 작업을 기획하고 있다. 문채원 작가는 'Fortune Teller' 포춘 텔러 전시를 통해 미래에 대한 힌트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물과 우리의 인식을 비틀어 해롭지 않지만, 쓸모도 없는 운세 풀이와 같은 행위에서 파생되는 감각적 장면을 시각화한다. '그림자 원' 전시를 기획하는 박로운 작가는 콜라주 작업으로 감정이 시간 속에서 순환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선보일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제57회 강암연목회 정기전 '독서와 사색' 개최

강암연목회의 제57회 정기 작품전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독서와 사색, 독서와 문해력·검색에서 사색으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는 서예를 통해 이 시대의 디지털 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성찰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

특히 회원이 1점씩 독서에 관한 동서고금의 유명 시·문을 서예작품으로 창작해 선보이는 것이 전시의 주요내용이다.

회원들은 "독서는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지식습득의 수단만이 아니라, 마음

안에 스승을 모시는 수도(修道)의 길이기도 하다"면서 "현대인들은 각종 검색을 통해 지식은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얻지만, 마음 안에 스승을 모시는 진정한 독서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번 전시를 통해 수도로서의 독서가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강암연목회장 김병기 전 북대 명예교수는 "이번 전시는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정의롭고 바르게 이끄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립합창단,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전주시립합창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김철)과 함께하는 덕진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오는 29일 저녁 7시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뽀(Fun)한 음악학교 합창5교시'로 최현옥(전주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송성근(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연주학 박사(합창지휘)) 두 명의 지휘자가 선생님이 돼 음악학교에 찾아온 관객에게 매 교시 다양한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공연 당일 저녁 6시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좌석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미술사 연구시리즈 '박민평·변주된 풍경'

전북도립미술관, 7월 13일까지 기억과 감각으로 그린 풍경화 105점 전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25일부터 본관 1~4전시실에서 전북미술사연구시리즈 '박민평·변주된 풍경'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2021년 천철봉, 2023년 이의주, 2024년 문복철에 이어 네번째 전북미술사 연구시리즈로 박민평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1970~80년대 사실묘사에 기반한 구상회화가 지역미술을 주도할 때, 비구상회화와와의 사이를 넘나들면서 반복하지 않고 지역미술계 커뮤니티의 중심에서 전북미술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확립한 박민평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박민평·변주된 풍경'에서는 박민평이 고등학교 때 제작한 작품부터 작고 2년 전 작품까지 '사실·색면·이야기·변주된 풍경'이라는 소주제로 총 105점의 작품을 4개의 전시실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민평이 전시했던 전시장이, 지역작가들과의 연대를 통한 단체전



을 함께 조명함으로써 지역 미술사 연구의 주제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춘향제·어린이날 대축제' 막바지 준비 박차

남원시는 다가오는 춘향제와 더불어 어린이날 대축제를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95회 춘향제와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만큼, 남원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몰들 전망이다.

춘향제의 전통과 품격 위에 어린이날의 즐거움과 활기가 더해져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함께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사는 남원예촌 마당에서 △서커스&저글링

공연 △어린이집 재능공연 △청소년 어울림 마당 △익스트림 별론쇼 △어린이 뮤지컬 갈라쇼 등의 다양한 공연 콘텐츠가 마련되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며, 가족 단위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축제의 품격함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5일에는 예무원 특설무대에서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날 대축제와 춘향제가 함께 어우러져 모든 세대가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굿즈 공모전 참여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다음 달 15일까지 관광굿즈 공모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4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 브랜드의 국내외 인지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기간은 5월 7~15일까지며, 신청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전북 관광굿즈 개발에 관심 있는 도내·외 모든 기업으로, 최종 10개사 내외의 관광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공모 주제는 전북의 대표 관광자원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관광 굿즈로, 기업당 2종에서 3종 이내의 상품을 제출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3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박람회 참가,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국내·외 유통 판매망 입점 기회 등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공모 주제를 '관광지'에서 '관광자원'으로 확대했으며, 지원 대상도 '도내 기업'에서 '도내·외 기업'으로 확장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전북만의 특색 있는 관광굿즈를 발굴하고자 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제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궁궐에 딸린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